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큰부리까마귀 이렇게 대처하세요!



큰부리까마귀 이렇게 대처하세요!



주요 출몰시기

연중 서식(번식기 3~7월, 특히 새끼 독립시기 5~7월)

주요 출몰장소

도심 전체(특히 녹지공간이 조성된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공원)

특징

형태

약 57cm로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부리는 크고 두툼

생태

털새(일정 지역에서 일 년 내내 서식)로 전국적으로 분포

잡식성으로 소형 조류·소형 포유류·곤충·열매 등을 포식하거나 사람이 버린 음식물쓰레기를 기회적으로 포식함

주로 산지나 인가 주변의 숲에서 번식하지만 최근에는 먹이를 구하기 쉽고 둥지를 짓기 용이한 도심 지역을 선호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등의 이유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큰부리까마귀 이렇게 대처하세요!

공격 행동 원인

둥지가 있는 장소와 알, 새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강해짐

둥지 또는 새끼 근처로 지나가는 사람 또는 개, 고양이 등을
위협요인으로 생각하고 공격할 수 있음



자연생태계에서 중요성

잡식성으로 소형동물을 포식하는 먹이사슬의 중간단계에 해당하여
생태계 균형에 다양한 역할이 가능

- ※ 열매의 종자 산포 또는 사체 청소부 역할로 생태계 위생 유지에 기여
- ※ 작물 해충을 포함한 곤충을 포식하여 곤충 개체수 조절에 기여

큰부리까마귀 이렇게 대처하세요!



우산, 모자, 가방으로 머리 가리기



119에 신고하기

대치요령

큰부리까마귀가 공격할 때 우산을 펼치거나 모자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가리고 빠르게 지나가세요

*큰부리까마귀는 신체에서 가장 높은 머리를 주로 공격합니다

동지나 새끼를 발견하거나 피해 발생 시 119 또는 지방정부에 신고하여 주세요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여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는 경우 우회하여 이동해주세요

큰부리까마귀 이렇게 대처하세요!



돌 던지지 않기



어린새 만지지 말기

대처요령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협 행동은 큰부리까마귀를 더 자극하여 공격을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어린새를 발견하면 만지지 않고, 즉시 자리를 피합니다
*큰부리까마귀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공격이 있을 때 가급적 자극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빠르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이주기 금지, 이동 중 음식물 섭취 자제, 쓰레기 뚜껑 덮기를 하여
큰부리까마귀의 접근을 최소화합니다

철저한 주의와 올바른 대처로 안전하게 공존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